국가기간산업의 심장

사회기반시설의 최첨단 도시

국내 최대 산업집적화 지역

울산광역시

울산을 국가산업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1. 반구대 암각화 보존
2.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설치
3. 국립울산산업과학관 건립
4. 울산신항만 조기 완공
5. 동해광역권 경전철 건설(울산·양산간)
6.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7. 산업도로망 확충

울산을 국가산업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

1995년 국보로 지정된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가 사연댐의 건설로 침수·훼손이 가속화되어 보존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에서 2003년 석조문화재보존과학연구회 용역결과 중 차수벽(제3안)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반구대 암각화에서 천전리 각석까지 역사유적(사적지정)과 주변 경관을 포함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입니다.

정책공약

세계문화유산 등재

- 암각화 보존대책(침수훼손 방지) 수립을 강구하겠습니다.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재보호구역 규제를 수용할 수 있는 주변마을 관광특화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설치

지방중소기업청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역시(6개) : 서울중기청, 부산(부산·울산중기청), 대구(대구·경북중기청), 인천중기청, 광주(광주·전남중기청), 대전(대전·충남사무소), 도단위(5개) :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울산지역의 중소기업 수는 약 6만 2,000개로 1996년부터 울산시와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설치를 위해 20회에 걸쳐 공동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공약

Task Force 팀 구성

- 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낙후된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험검사팀을 설치해, 지역의 중소제조업체가 기술개발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거나 시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하청구조로 대기업에 의존적인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업체의 경영지도·기술지도·판로지원 등과 같은 문제를 담당할 경영지원팀을 설치하겠습니다.
- 향후 기업경쟁력의 근원은 기술에 있고 또 확보된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이 상업화에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지원팀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국립 울산산업과학관 건립

현재 운영 중인 과학관은 국립서울과학관과 국립중앙과학관(대전소재)이 있고, 건립 중인 과학관으로는 광주, 대구, 과천 등 3개소가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포괄하는 동남권은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지이며, 인구 800만의 거대 권역임에도 지역의 과학문화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간산업의 과거, 현재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학문화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첨단화 사업과 연계해야 합니다.

정책공약

전국적인 관광명소 육성

- 지난 40년간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온 산업수도 울산에 산업과 과학이 접목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과학관을 건립하겠습니다.
- 천혜의 해안경관과 수려한 송림 등 자연여건을 갖춘 교육연수원(동구 대왕암공원 내) 부지에 건립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 지역의 부족한 컨벤션 기능 보완은 물론 홍보, 전시, 기술교류 등 국제적인 교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울산신항만 조기완공

정부의 Two-port 정책(부산·광양항) 및 국가정책사업(평택·당진항)의 우선 추진으로 울산신항에 대한 정부투자가 저조(신항건설 중 추진실적 최하위)합니다.(부산신항 66%, 광양항 73%, 평택 · 당진항 68%, 인천북항 62%, 울산신항 42%)

울산항은 물류요충지로서 수출·입 물동량의 19.3%, 원유수입의 55%, 선박수송의 40%, 자동차 수출의 50%를 매년 처리하고 있으나 항만시설 부족, 체선·체화현상이 심각하여 컨테이너화물 중 63%를 외지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공약

상업항 기능 대폭 확대

- 울산신항만을 조기 완공하겠습니다.(2015년까지 건설 예정 4선석 ⇒2011년까지 완공, 2020년까지 건설 예정 4선석⇒2015년까지 완공)
- 정부투자를 확대해 상업항 기능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투자사업비 1조 9,891억 원⇒3조 5,192억 원으로 확대(당초 투자 예정 규모))

동해광역권 경전철 건설(울산~양산간)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동남권 지역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울산, 양산 및 부산 북부지역 주민의 고속철도 이용편의 제고 및 산업단지, 대학 등과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산학클러스터 형성이 필요합니다.

정책공약

광역생활권 구축 토대 마련

- 울산 굴화·울산과학기술대·KTX 울산역·양산 북정을 잇는 경전철을 건설하겠습니다.(부산2호선 연장선(호보·북정) : 2013년 개통 예정)
- 부·울·경 지역간 순환철도망을 완성해 광역생활권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 동반성장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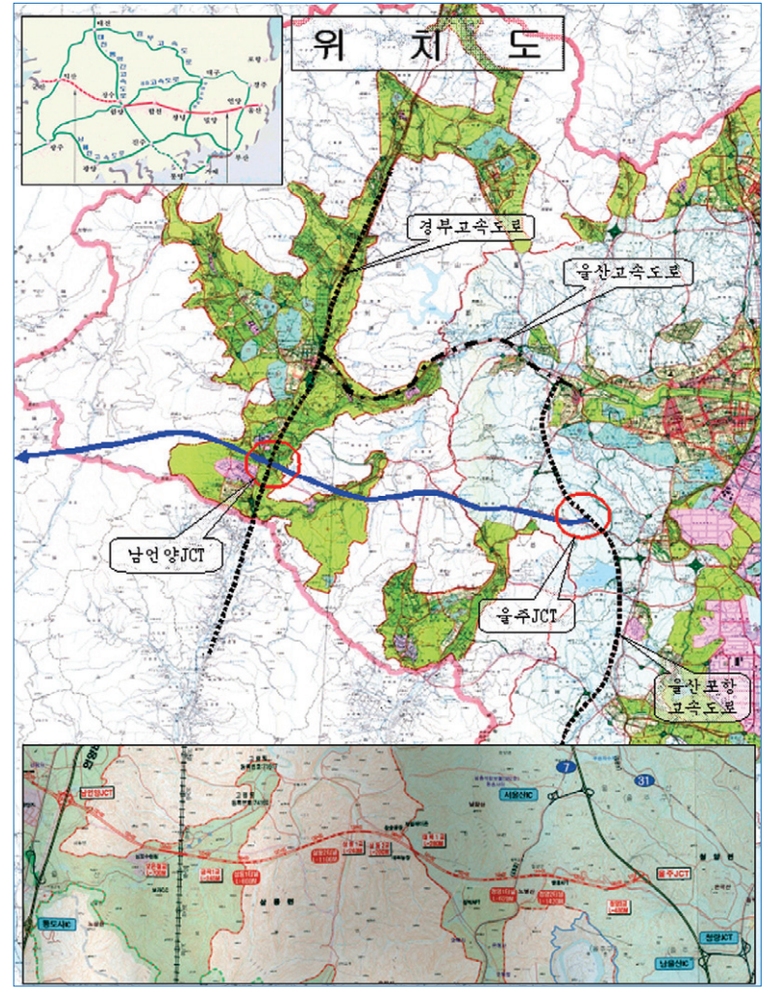
남해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국가 기간 교통망의 추가 구축이 시급합니다.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및 지역간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한 동서 교통축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북 익산·함양 구간은 이미 개통됐으며, 함양·밀양 구간은 기본설계 중이며, 밀양·울산 구간은 교통수요를 재검증 중입니다.

정책공약

동서 교통축 보완

-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로 울산·경남 동서 교통축 보완과 신항만 및 산업단지 물류비용 절감,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국가 기간교통망 구축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및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산업도로망 확충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국립대, 구영지구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함께 원활한 간선도로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책공약

도심지 교통난 해소

- 국도 14호선(무거 · 척과)을 연장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 국도 7호선 및 14호선의 시가지 진입교통량을 우회 처리함으로써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 서부지역과 국도 14호선 연결로 국도 24호선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 국도 35호선(삼남 · 상북(길천산업단지) · 두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촉진 및 울주군 언양읍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겠습니다.

